조사연구 자료

제 3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009. 1.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제3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 6

3. 기획 조사 결과 ····· 23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26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경제적 행복지수가 3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여 경기 침체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2008년 말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독신 여성이면서 중위 소득 정도의 전문직 혹은 공무원으로 추정됨

○ 부문별 경제적 행복 지수

- **지역별 :**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위로 가장 높고 경남이 16위로 가장 낮았고, 특히 충북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조사1위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15위로 급락함
- **직업별 :** 경기 침체 심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경제 상태를 무직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여김
- **연령별 :** 40대의 경제적 고통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됨
- **소득 및 자산별 :** 소득 8천 만원 이상, 자산 10억 이상의 부유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학력별 :** 취약계층인 중졸의 이하의 학력자와 함께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혼인상태별 :**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혼자는 가족부양 및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의 가중으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 기획조사 결과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년 외환 위기보다 힘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업 증가가 가장 큰 경제적 공포라고 응답함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경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답함

제3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조사결과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향후 반기 1회씩(6월, 12월) 경제적 행복지수를 발표하고자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① + ② + ③ + ④ + ⑤}{5} + ⑥}{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 와 '아니다' 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 가 60% 이고 '아니오' 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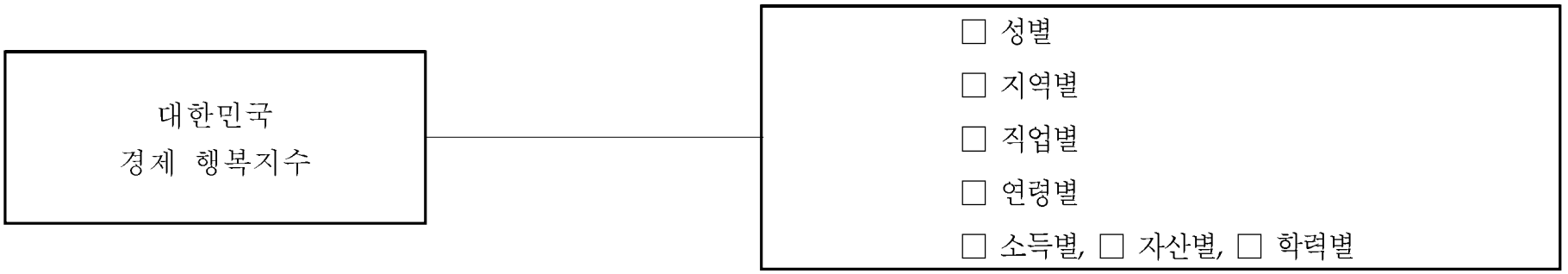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08년 12월 1일 ~ 12월 9일(8일간),
  (본 조사는 제3회 조사로서 제2회 조사는 2008년 5월 6일 ~ 5월 16일에 실시됨)
- 조사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40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일산/분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결과 분석



2. 행복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경제적 행복지수가 3기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여 경기 침체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경제적 행복 지수는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각각 39.9, 34.8에서 2008년 하반기에는 33.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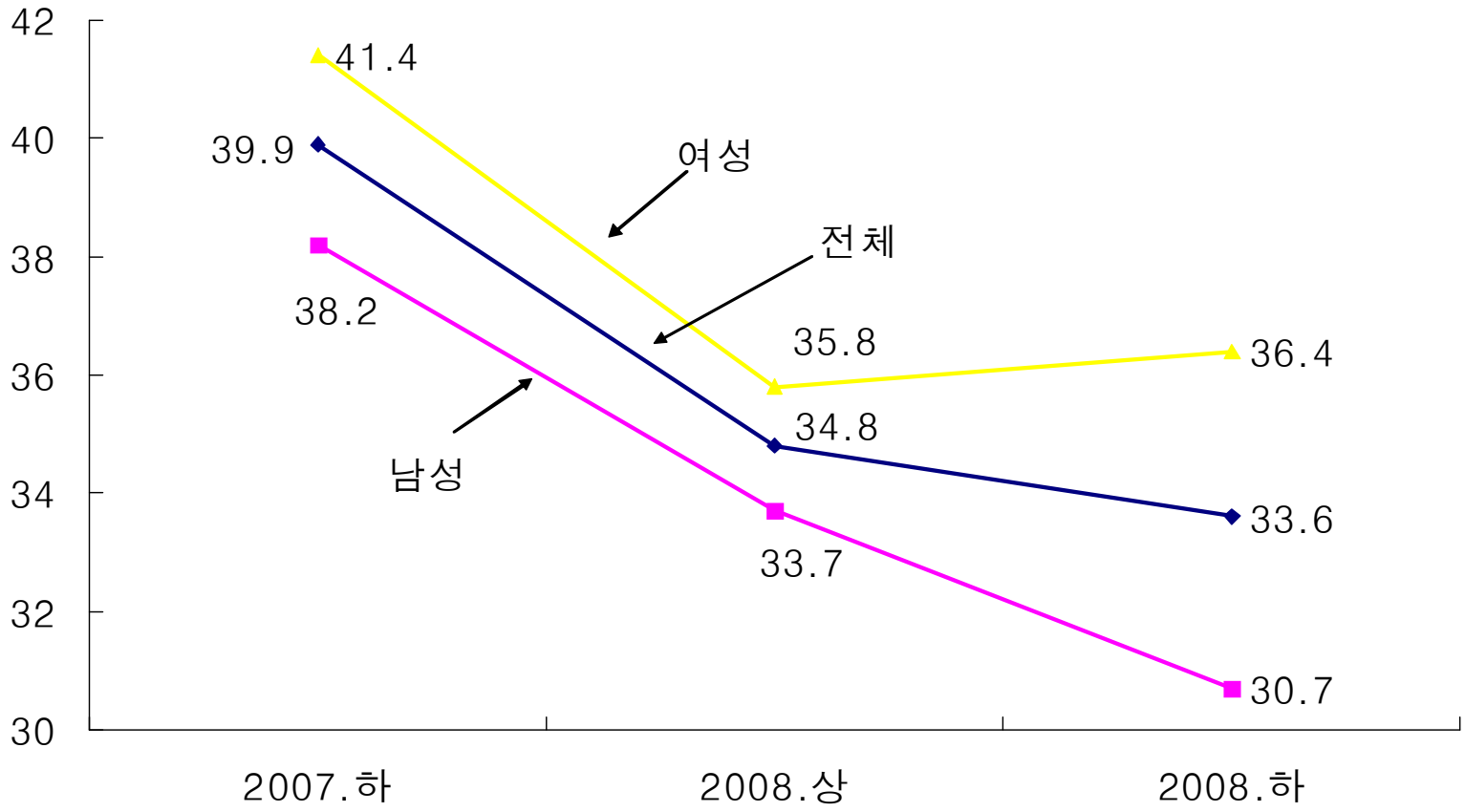
- 한편, 남녀별로 보면 남성의 행복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여성은 소폭이나마 개선되었음. 이는 남성이 경기 침체에 대한 체감 정도가 더 높은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8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008년 하반기 125.6으로 전기대비 2.5p 상승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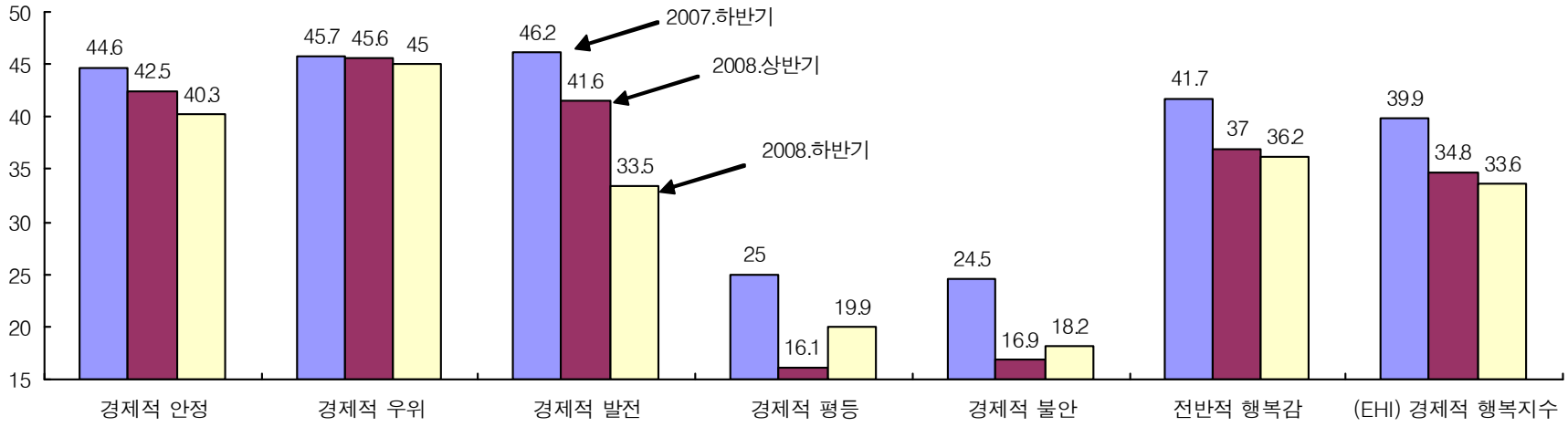
○ (항목별) 2007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행복 지수가 하락하였지만, 2008년 상반기 대비로는 경제적 평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08년 상반기에 비해서 경제적 평등 지수가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기 침체 심화로 전 소득 계층이 경제적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데 따르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42
40
38
36
34
32
30
41.4
39.9
38.2
35.8
34.8
33.7
36.4
33.6
30.7
여성
전체
남성
2007.하
2008.상
2008.하

< 항목별 경제적 행복 지수 비교 >



< 경제적 행복 예측 추이 >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여 성	137.0	131.1	129.2
전 체	**136.0**	**123.1**	**125.6**

○ **(경제적 행복 예측) 2008년 상반기 크게 하락했던 장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8년 하반기에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여 미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대비 현재의 경제적 행복 수준은 ▽1.2p 하락했음에도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은 오히려 2.5p 상승한 125.6으로 응답하여 미래에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 낙관적인 기대를 보임[1)]**
  - 2008년 하반기 조사(제2회 조사)에서는 경제적 행복 수준은 34.8로 전기대비 ▽5.1p 하락하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역시 ▽12.9p 하락하여 123.1을 기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00을 상회하여 미래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
  - 2008년 하반기 조사(제3회 조사)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행복 수준은 33.6으로 ▽1.2p 하락하였으나,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은 오히려 2.5p 상승한 125.6을 기록하여 장래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외환 위기를 극복한 사례 등이 있어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됨**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실물 경기 부진으로 현재의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있으나,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민들의 희망적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전국 16개 시도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1위(42.0)로 가장 높고, 경남이 16위(24.8)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남

- 단, 충북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조사의 1위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15위로 급락함

· 이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됨

· 이에 따라 충북의 경제적 우위는 39.3(15위), 경제적 불안은 10.3(16위)이며, 전반적 행복감은 25.6으로 40.8을 기록한 제주의 64% 수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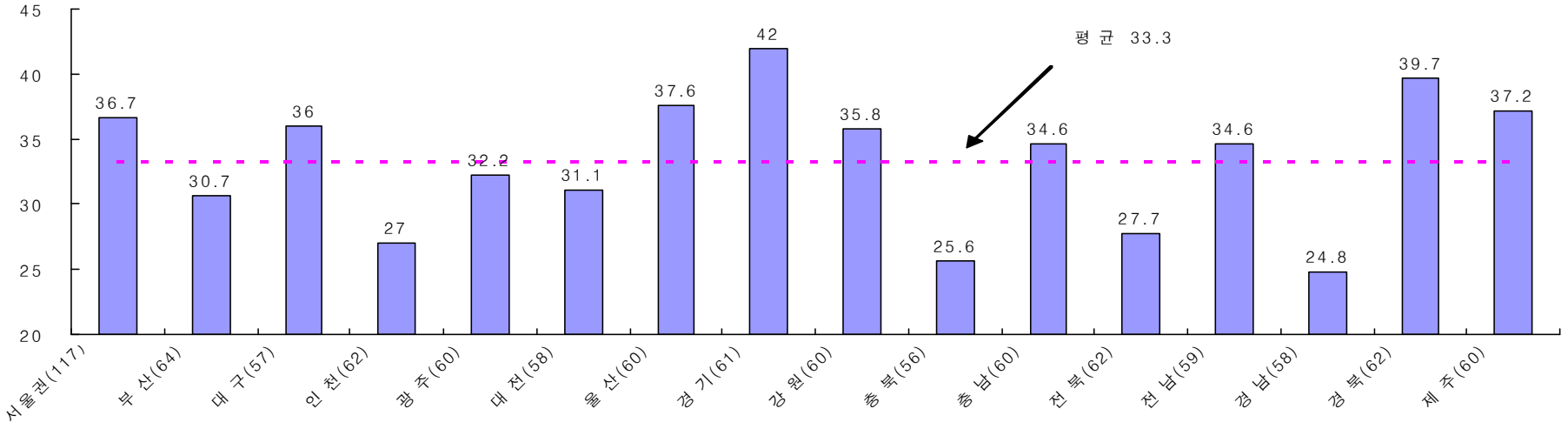
- 서울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0.3보다 작은 33.0인데 반해, 경기를 비롯 도지역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33.6을 기록하여 대도시보다 도지역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행복지수의 지역별 순위에 있어서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등 광역시가 각각 10, 11, 12, 14위를 보여 이들 지역의 경기 침체 양상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평가됨

· 대구의 경우, 경북(전국 2위)과 함께 6위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경제적 기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에 따라 장래 경제적 행복 예측이 대구, 경북의 경우 각각 133.4와 137.8로 최상위권에 위치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44.6	33.6	48.7	34.3	38.3	43.5	42.9	40.6	42.9	33.5	41.7	38.3	33.5	32.3	48.4	43.8
경제적 우위	46.6	44.5	48.2	40.7	45.4	43.9	47.5	49.6	45.8	39.3	43.6	37.9	41.5	40.9	51.3	50.0
경제적 발전	32.3	27.7	31.6	23.8	36.7	30.6	38.3	40.0	40.0	33.0	34.6	31.5	33.5	24.6	39.8	35.4
경제적 평등	25.9	18.8	16.7	13.3	19.8	15.5	28.8	22.1	16.7	16.4	14.4	14.1	18.9	13.8	34.7	22.1
경제적 불안	23.1	14.1	17.5	16.0	14.6	20.7	26.7	16.8	22.5	10.3	16.3	10.5	16.9	11.6	32.0	16.3
전반적 행복감	39.3	33.6	39.5	29.0	34.2	31.9	38.3	49.2	38.3	25.9	39.2	29.0	40.7	25.0	39.3	40.8
경제적 행복지수	**36.7**	**30.7**	**36.0**	**27.0**	**32.2**	**31.1**	**37.6**	**42.0**	**35.8**	**25.6**	**34.6**	**27.7**	**34.6**	**24.8**	**39.7**	**37.2**
지역별 순위	5	12	6	14	10	11	3	1	7	15	8	13	9	16	2	4
경제적 행복 예측	131.6	115.6	133.4	113	115.2	119.2	120.0	143.4	133.4	132.2	122.0	135.4	122.0	110.4	137.8	1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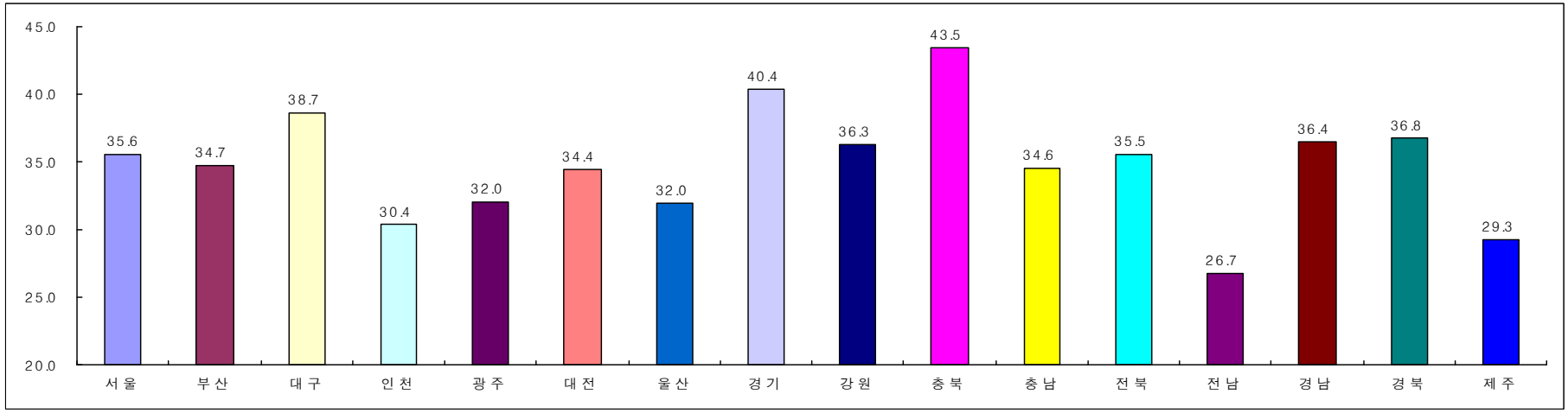


2) 서울은 분당/고양을 포함한 수치임

< 참고 > 제 2회 대한민국 지역별 행복지수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44.0	42.6	46.0	35.1	41.0	44.3	41.4	53.6	44.9	48.8	43.1	41.4	34.4	41.0	40.4	40.4
경제적 우위	44.4	41.0	48.4	42.3	50.0	41.7	41.8	49.1	49.6	54.4	47.0	44.4	35.2	49.2	49.3	44.6
경제적 발전	43.5	44.7	38.1	44.4	32.8	43.4	40.2	42.9	43.6	47.6	40.5	44.4	39.3	45.7	38.6	36.3
경제적 평등	19.9	15.2	22.6	13.7	10.9	17.5	13.7	17.0	13.6	21.4	15.9	15.5	11.9	17.2	13.6	13.8
경제적 불안	21.1	19.3	17.1	14.9	13.3	17.5	10.5	18.3	12.3	24.2	13.8	15.5	15.2	19.9	16.5	15.8
전반적 행복감	36.6	36.9	42.9	30.6	34.4	36.0	34.4	44.6	39.8	47.6	37.1	38.8	26.2	38.3	41.9	28.3
경제적 행복지수	**35.6**	**34.7**	**38.7**	**30.4**	**32.0**	**34.4**	**32.0**	**40.4**	**36.3**	**43.5**	**34.6**	**35.5**	**26.7**	**36.4**	**36.8**	**29.3**
지역별 순위	7	9	3	14	13	11	13	2	6	1	10	8	16	5	4	15
경제적 행복 예측	**129.6**	**131.1**	**127.0**	**103.2**	**103.1**	**101.8**	**112.5**	**128.6**	**159.3**	**117.5**	**110.3**	**127.6**	**141.0**	**137.5**	**129.4**	**113.3**



3) 서울은 일산과 분당을 포함한 수치임

○ (직업별) 경기 침체 심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경제 상태를 무직과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전문직과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문직의 경우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해서는 전기대비 ▽35.8p 하락하여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7.3p 상승하여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전문직과 공무원 역시 경제적 안정 및 경제적 발전에 대한 행복감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기 한파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기타 무직 군과 거의 유사한 경제적 불행을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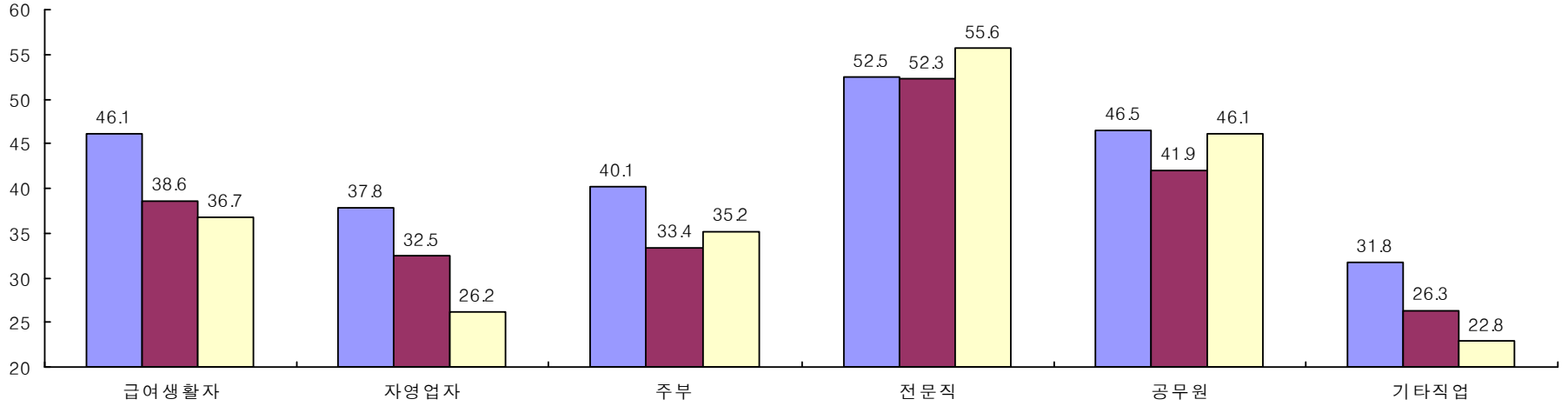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6.3p 하락하여 26.2를 기록하여 22.8(전기대비 ▽3.5p 하락)을 기록한 기타(무직)군과 거의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음

· 단, 자영업자는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0.8p 상승하여 122.2를 나타내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고 보고 있으나, 기타 무직군은 미래에 경제적 행복 예측도 100을 하회하는 89.4를 보여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급여생활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36.7로 낮게 나타났으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145.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매우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급여생활자4)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45.2	▽2.5	29.7	▽6.3	43.3	1.5	50.0	▽4.2	60.1	▽1.2	24.8	▽5.2
경제적 우위	48.2	▽0.5	34.9	▽7.7	49.5	4.4	69.0	2.3	55.7	3.3	32.4	▽6.5
경제적 발전	43.5	▽8.6	25.4	▽14.1	30.7	▽4.8	40.5	▽24.1	52.4	0	15.7	▽7.1
경제적 평등	21.8	6.0	16.2	▽0.3	21.5	7.8	10.7	4.4	20.5	7.2	18.4	▽4.7
경제적 불안	19.2	1.1	17.2	▽0.8	16.6	3.1	28.6	9.8	29.5	8.1	12.6	▽3.7
전반적 행복감	37.8	▽3.0	27.6	▽6.9	38.8	1.9	71.4	8.9	48.8	5.3	26.4	0.1
경제적 행복지수	36.7	▽1.9	26.2	▽6.3	35.2	1.8	55.6	3.3	46.1	4.2	22.8	▽3.5
경제적 행복 예측	145.4	7.2	122.2	0.8	117.8	▽2.6	114.2	▽35.8	142.8	7.3	89.4	▽3.5



4)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7년 하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경제적 고통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고령일수록 더욱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하향 추세가 나타난 가운데, 40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경제적 행복 지수가 하락함(35.2 → 31.2)

· 경제적 행복에 대해 20대가 41.0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는 전기대비 ▽4.0p 하락한 31.2를 기록하여 가장 하락폭이 커 경기 침체에 대한 고통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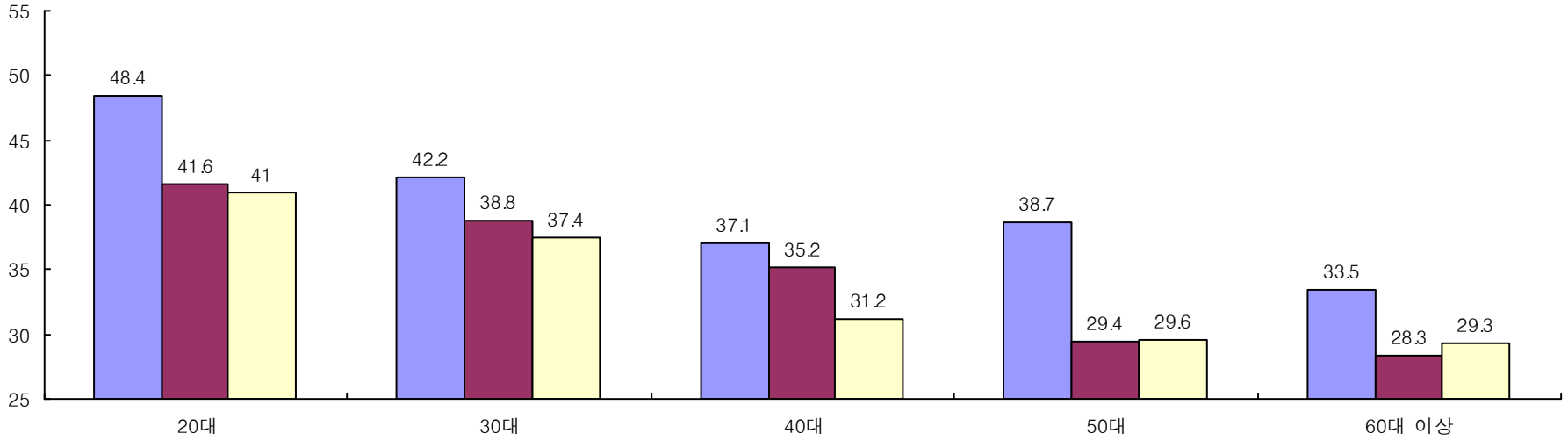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단, 전기대비 하락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대의 경우 153.8로 가장 높지만, 전기대비 ▽6.0p 하락한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0이하인 95.4를 기록하여 암울하게 보고 있지만, 전기대비 17.4p나 상승함

· 특히 20대의 경우는 2007년 하반기(제 1회 조사)에 비교하면, ▽20.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48.7	▽2.2	43.5	▽2.5	40.7	▽3.1	37.6	▽0.4	28.6	▽5.3
경제적 우위	52.8	1.5	45.3	▽2.8	45.5	▽1.5	41.6	2.3	40.8	▽1.2
경제적 발전	55.2	▽3.6	44.4	▽8.6	29.9	▽13.0	21.4	▽9.1	15.2	▽5.6
경제적 평등	23.5	6.1	18.4	6.1	19.2	6.0	17.5	1.8	25.0	2.0
경제적 불안	26.1	2.1	20.1	2.2	17.3	3.7	13.3	▽1.5	16.0	1.5
전반적 행복감	40.7	▽2.1	40.8	▽1.3	32.3	▽6.0	32.8	1.7	35.3	5.6
경제적 행복지수	**41.0**	**▽0.6**	**37.4**	**▽1.4**	**31.2**	**▽4.0**	**29.6**	**0.2**	**29.3**	**1.0**
경제적 행복 예측	**153.8**	**▽6.0**	**149.6**	**▽2.8**	**117.2**	**▽6.2**	**105.4**	**7.2**	**95.4**	**17.4**



○ (소득 및 자산별) 경기 침체 속에서 소득 8천 만원 이상, 자산 10억 이상의 부유층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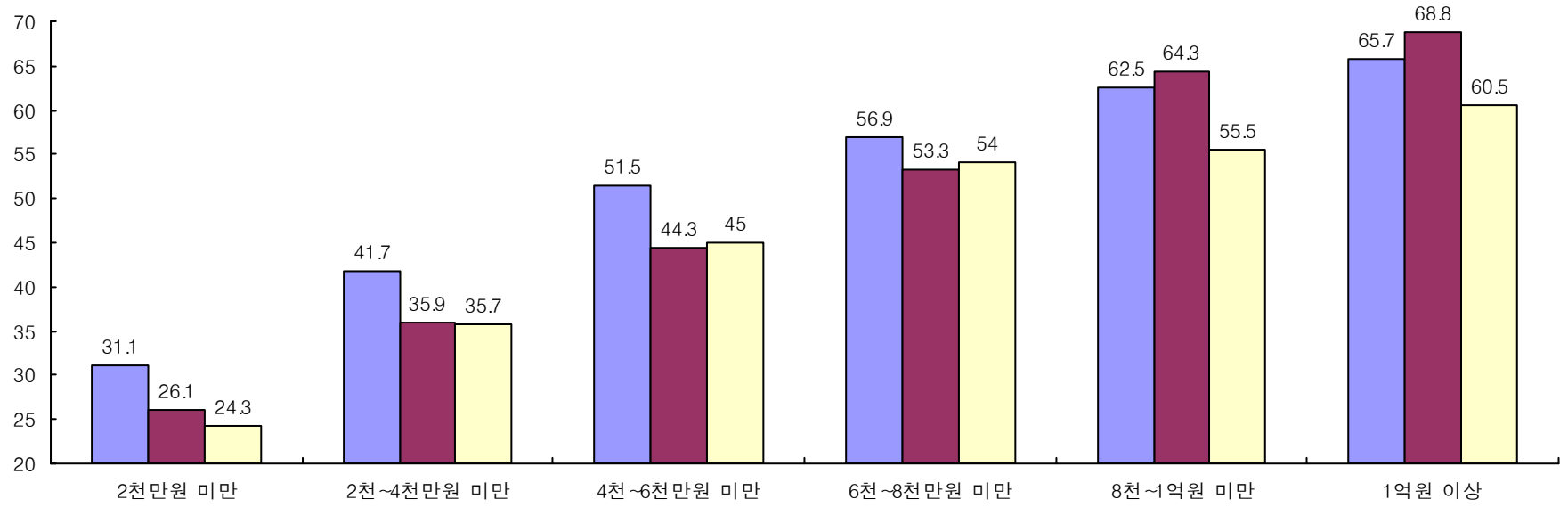
- 소득별로는 8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행복 지수의 하락폭이 제일 큼

· 이는 경기 침체에 의한 소득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8천 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행복감이 ▽10.8p, ▽29.4p나 하락했음

· 그러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자들은 전기대비 ▽0.4p, ▽0.9p 하락하여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상위 소득자들은 10.5p, 10.0p 상승하여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24.3	▽4.5	45.6	▽0.4	60.0	3.5	68.0	▽1.1	64.3	▽19.0	70.0	▽20.6
경제적 우위	31.8	▽3.5	46.8	0.7	63.5	3.9	75.0	3.9	71.4	▽0.3	75.0	▽6.3
경제적 발전	22.6	▽6.7	37.2	▽7.9	46.7	▽5.9	53.5	▽11.2	62.5	▽10.8	55.0	▽29.4
경제적 평등	18.7	1.3	21.2	6.0	20.1	4.4	20.9	8.6	19.6	4.6	30.0	23.8
경제적 불안	12.7	▽1.7	19.9	2.4	26.8	8.6	19.8	2.6	33.9	0.6	25.0	▽25.0
전반적 행복감	27.1	▽0.0	37.4	▽0.5	47.3	▽0.7	60.5	0.7	60.7	▽12.6	70.0	▽5.0
경제적 행복지수	**24.3**	**▽1.8**	**35.7**	**▽0.2**	**45.0**	**0.7**	**54.0**	**0.7**	**55.5**	**▽8.8**	**60.5**	**▽8.3**
경제적 행복 예측	**107.6**	**6.1**	**137.8**	**0.6**	**133.4**	**▽0.4**	**144.2**	**▽0.9**	**157.2**	**10.5**	**16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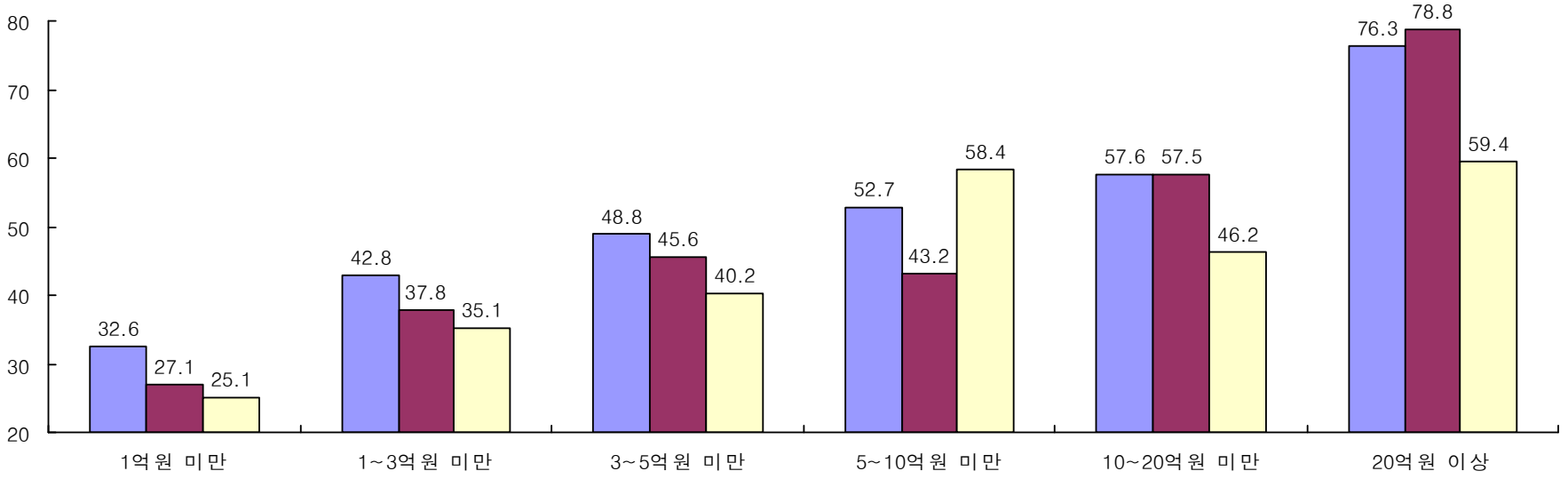


- 자산별로 보아도 전기대비 20억원 이상 부유층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78.8에서 59.4(▽19.4)로 대폭 하락함

· 특히,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20억원 이상의 부유층에서는 100.0p 하락한 100.0을 보여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29.5	▽2.4	43.3	▽4.4	47.6	▽12.0	72.9	23.9	63.2	▽18.7	37.5	▽56.3
경제적 우위	32.2	▽2.3	49.1	▽1.4	55.7	▽10.2	74.6	17.1	66.2	▽0.5	75.0	▽18.8
경제적 발전	28.9	▽6.2	35.5	▽10.7	34.6	▽17.8	49.6	13.1	26.5	▽24.9	31.3	▽68.7
경제적 평등	18.7	4.0	18.6	1.7	19.5	5.2	26.8	8.3	41.2	19.0	37.5	31.3
경제적 불안	13.9	0.0	18.2	1.3	20.4	1.9	39.4	14.4	29.4	▽3.9	37.5	▽18.8
전반적 행복감	25.8	▽2.5	37.9	▽2.0	44.9	▽4.2	64.8	15.8	47.1	▽16.8	75.0	▽12.5
경제적 행복지수	25.1	▽2.0	35.1	▽2.7	40.2	▽5.4	58.4	15.3	46.2	▽11.3	59.4	▽19.4
경제적 행복 예측	117.8	0.6	122.8	0.1	134.4	▽8.2	157.8	37.8	141.2	▽3.2	100.0	▽100.0



○ (학력별) 취약계층인 중졸의 이하의 학력자군과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중졸이하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20이하인 19.4까지 하락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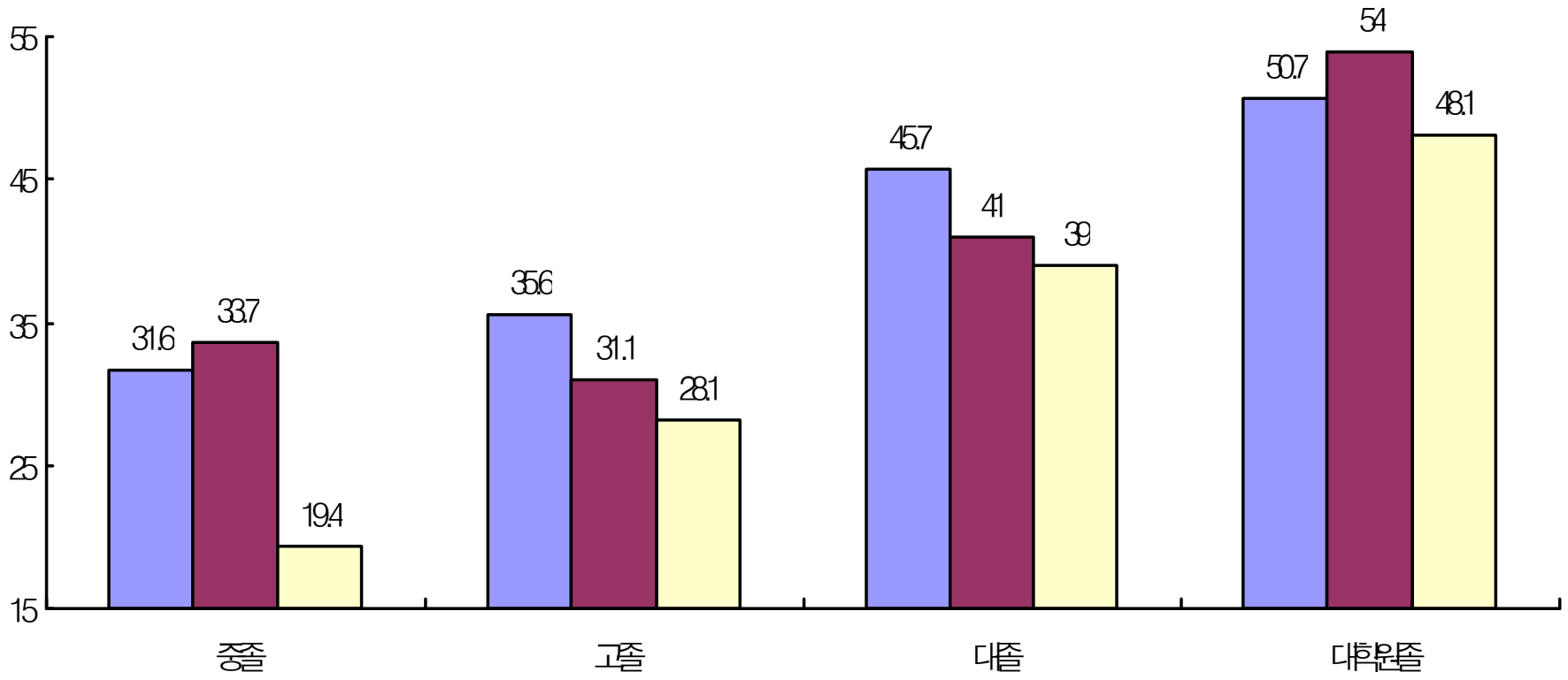
· 중졸이하에서는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마저도 전기대비 ▽6.0p 하락한 94.2를 보여 현재의 불행이 미래에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음

-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도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4.8p 하락한 48.1로 나타나 2007년 하반기의 50.7 이하로 내려갔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역시 전기대비 ▽5.9p 하락한 150.0을 보임

· 이는 저학력자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자의 취업난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17.4	▽17.0	34.7	1.7	48.1	▽4.8	56.8	▽0.5
경제적 우위	28.7	▽13.2	40.6	0.1	50.1	▽1.6	61.9	▽2.6
경제적 발전	13.5	▽18.1	25.4	10.6	42.4	▽10.7	43.8	▽12.7
경제적 평등	19.6	▽1.5	20.5	4.7	19.8	5.3	18.2	▽2.8
경제적 불안	10.1	▽38.5	16.8	0.1	20.6	▽0.2	23.8	5.3
전반적 행복감	24.0	▽7.8	28.8	4.4	41.9	▽1.6	55.7	▽8.8
경제적 행복지수	**19.4**	**▽14.3**	**28.1**	**▽3.0**	**39.0**	**▽2.0**	**48.1**	**▽4.8**
경제적 행복 예측	**94.2**	**▽6.0**	**112.8**	**▽9.7**	**139.6**	**▽5.0**	**150.0**	**▽5.9**


55
45
35
25
15
31.6
33.7
19.4
35.6
31.1
28.1
45.7
41
39
50.7
54
48.1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 (혼인 상태별) 경기 침체의 심화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혼자는 가족부양 및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전기대비 경제적 행복지수는 2008년 상반기에 이어 계속해서 하락하여 33.1를 보임

- 경제적 행복 지수의 경우는 기혼자보다 미혼자와 이혼자가 높게 나타남

· 미혼자와 이혼자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는 가정이 있는 기혼자가 미혼자나 이혼자보다 월등히 높음

·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경제 위기 극복에 정신적 위로와 힘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혼자와 사별자의 경제적 행복 지수가 각각 14.0, 16.7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화될 수 있어 재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계몽과 재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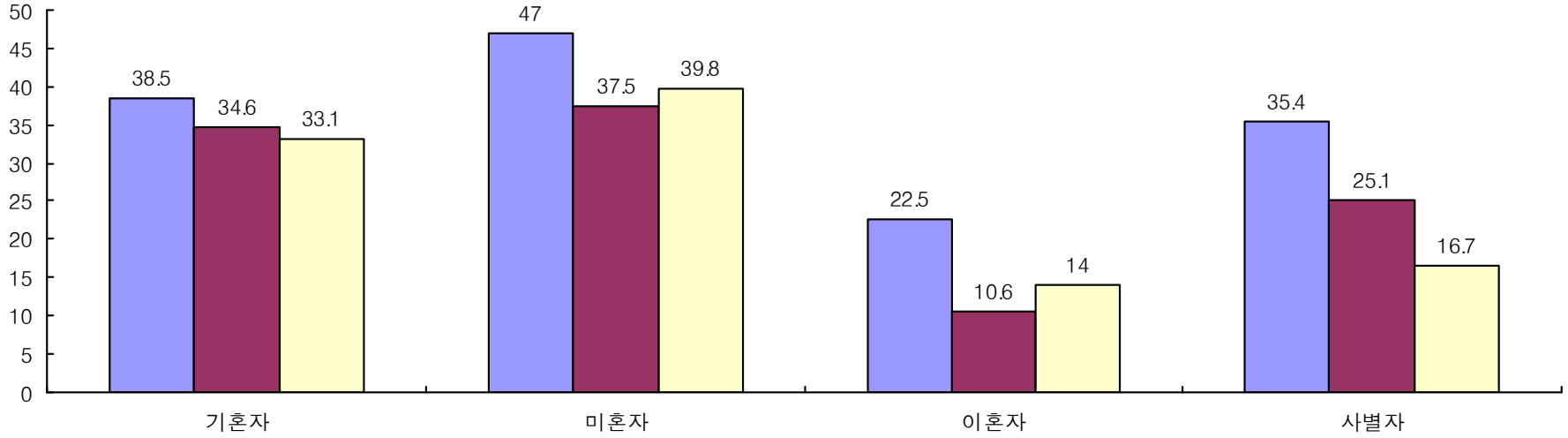
· 이혼자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전기대비 3.4p 상승한 14를 보였고, 사별자는 전기대비 ▽8.4p 하락한 16.7을 보임

· 특히,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40.0 및 69.6으로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따라서, 이혼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혼율을 높여 출산율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정책이 필요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40.5	▽2.2	44.5	▽0.8	17.5	11.3	19.8	▽7.1
경제적 우위	44.5	▽1.7	50.1	3.6	32.5	26.3	29.2	▽5.4
경제적 발전	30.9	▽8.6	50.7	▽3.1	12.5	▽18.8	8.3	▽10.0
경제적 평등	19.8	4.2	21.3	3.7	15	15.0	18.5	▽0.7
경제적 불안	16.9	1.6	25.4	2.3	12.5	12.5	10.4	▽6.9
전반적 행복감	36	▽1.4	41.2	3.5	10	▽2.5	18.8	▽8.1
경제적 행복지수	33.1	▽1.5	39.8	2.3	14	3.4	16.7	▽8.4
경제적 행복 예측	122.2	3.5	153.0	▽1.0	40.0	▽60.0	69.6	23.4



3. 기획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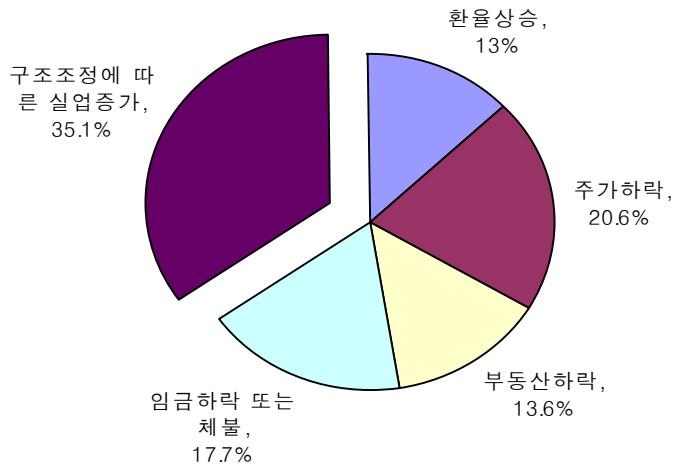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가 가장 큰 경제적 공포

-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행복감 상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이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971명의 응답자 중에서 341명 (35.1%)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가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환율상승', 주가하락 ' 및 부동산하락 은 각각 13%, 20.6% 및 13.6%로 이들은 자산가격의 변동이 실업의 고통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함

·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한국 금융 시장의 혼란에 따른 고통보다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고용 불안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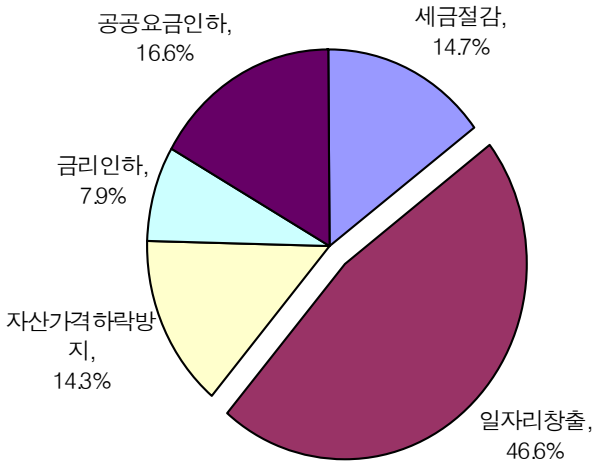
○ 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

-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경제정책은? 이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29명의 응답자 중에서 479명 (46.6%)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하고 147명(14.3%)이 자산가격하락방지라고 응답함

- 공공요금인하, 세금절감 및 금리인하는 각각 171 명(16.6%), 151명(14.7%) 및 81명 (7.9%)로 일자리 창출보다 후순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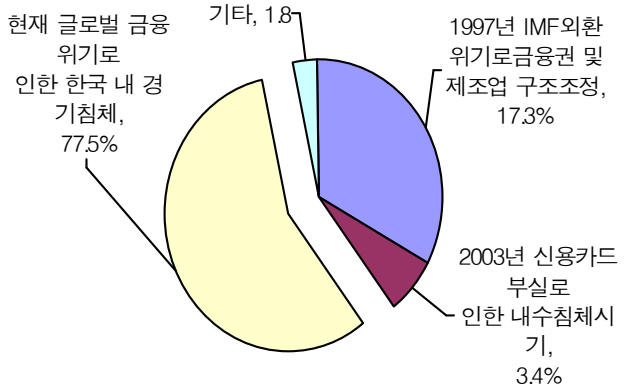
- 이는 국민들이 자산가격의 하락방지 등과 같은 소극적 정책보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고용 둔화에 따르는 소비 감소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부 경제 정책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년 외환 위기보다 힘든 것으로 인식함

- 귀하는 경제적 행복 관점에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20명의 응답자 중에서 791명 (77.5%)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 내 경기 침체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
- 반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금융권 및 제조업 구조조정은 176명(17.3%)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함
- 2003년 신용카드 부실로 인한 내수침체시기에 대해서는35명(3.4%)만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함
- 이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됨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08년 말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독신 여성이면서 중위 소득 정도의 전문직 혹은 공무원으로 추정

· 이들의 현재 경제적인 행복감은 6개월 전에 비해 다소 상승한 반면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해서는 다소 어둡게 바라보고 있음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학력이 낮으며 자산과 소득이 없는 50대 이상의 독신자로 추정됨

○ 미래에 대한 경제적 행복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편

- 경제적 행복감은 낮아지고 있으나, 미래 경기 회복에 따르는 경제적 행복 예측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

· 이는 한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은 이같은 기대감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

○ 일자리 창출과 공공요금 인하가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

- 과거 IMF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권 및 제조업의 구조조정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가 더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이 7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 경제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요금인하가 각각 46.6%, 16.6%로 나타나 이를 통한 중산층 몰락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작 성 : 정 유 훈 선 임 연 구 원 (3669-4014, youhun@hri.co.kr)
현 석 원 연 구 위 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홍 유 림 전 문 연 구 원 (3669-4018, ylhong@hri.co.kr)